



2013년 11월 20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워렌버핏의 엑손모빌 투자와 배당주

• 이머징마켓 동향

차익매물 등으로 중화권 증시 강세 둔화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기아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타이어, KCC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 증권	구 분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종합주가지수		1,995.48	1,963.56	1,967.56	2,005.64	2,010.81	2,031.64
	등락폭		18.18	-31.92	4.00	38.08	5.17	20.83
	등락종목	상승(상한)	555(6)	231(14)	444(6)	538(4)	342(11)	427(3)
		하락(하한)	252(3)	582(2)	368(1)	280(3)	463(3)	394(7)
	ADR		82.46	80.56	82.50	84.01	82.32	80.49
	이격도	10 일	99.06	97.95	98.45	100.53	100.86	101.81
		20 일	98.31	96.90	97.28	99.27	99.63	100.73
	투자심리		30	2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247	252	323	260	314	397
거래대금	(십억 원)	3,247	3,513	3,810	3,613	3,090	4,232	
코스닥	코스닥지수		510.73	505.60	511.75	512.74	509.54	505.50
	등락폭		7.79	-5.13	6.15	0.99	-3.20	-4.04
	등락종목	상승(상한)	555(7)	231(7)	444(8)	535(9)	342(2)	289(4)
		하락(하한)	252(0)	582(6)	368(5)	384(3)	463(3)	645(4)
	ADR		76.68	77.83	82.42	82.09	78.25	74.88
	이격도	10 일	97.41	97.02	98.59	99.20	99.05	98.71
		20 일	96.94	96.15	97.41	97.72	97.30	96.77
	투자심리		30	2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288	298	276	310	290	296
	거래대금	(십억 원)	1,379	1,327	1,333	1,381	1,471	1,58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기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2,005.1	1,100.8	1,112.9	270.3	156.4	283.7	92.5	22.3	287.725	42.5
	매도	2,373.1	855.2	977.0	221.4	105.5	263.4	60.0	31.4	295.4	56.0
	순매수	-368.0	245.6	135.9	48.9	50.9	20.2	32.5	-9.1	-7.7	-13.4
	11월 누계	536.8	-420.3	-52.7	-954.3	-90.2	213.2	66.1	-75.8	788.2	-63.8
	13년 누계	-4,499.3	4,748.2	1,437.1	96.0	1,109.0	-6,114.1	-386.8	-2,722.6	9,455.6	-1,686.0
코스닥	매수	1,430.5	77.2	79.5	12.4	8.7	26.2	5.9	2.8	23.6	13.4
	매도	1,400.7	81.8	102.9	22.8	10.1	26.9	8.3	3.4	31.3	15.1
	순매수	29.7	-4.6	-23.4	-10.5	-1.3	-0.8	-2.4	-0.6	-7.8	-1.8
	11월 누계	223.2	-84.7	-125.9	-41.8	-8.1	-7.3	4.6	-4.0	-69.3	-12.6
	13년 누계	-544.4	1,627.9	-226.8	-173.6	-100.8	108.6	-146.2	-88.2	173.4	-856.7

워렌버핏의 엑손모빌 투자와 배당주

2014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9.6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7.7%p

- ▶ 최근 시장의 성격은 유동성 랠리: 'Yield'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
- ▶ 워렌 버핏의 엑손모빌 투자: 에너지 시황 바닥보다는 저평가, 주주친화적 기업 관점이 유효
- ▶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조선, 소셜미디어 인터넷, 배당 관점에서 우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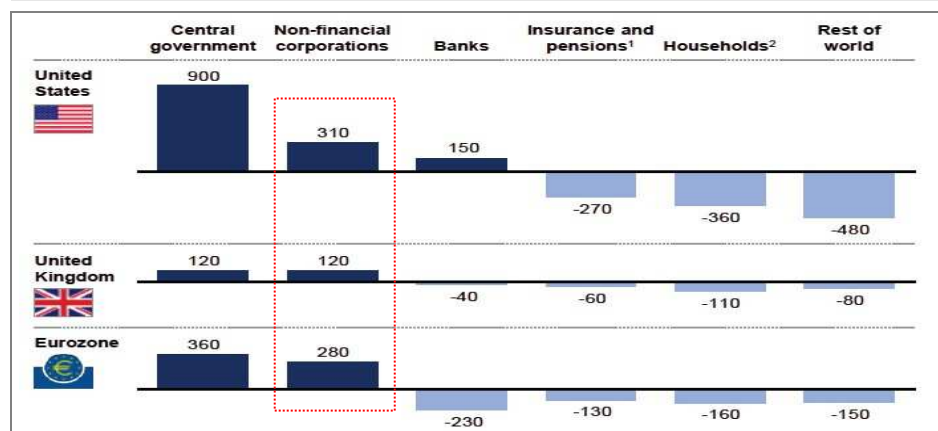
■ 저금리의 최대 수혜는 기업

기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늘리는 것이다. 그것도 기회 비용 이상의 가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기업의 PB는 1 이상에서 거래된다. 이론적으로 PB는 자본이 창출하는 가치인 ROE(Return On Equity)와 기회비용인 COE(Cost of Equity)의 비율인데, 대부분 기업의 PB가 1을 넘는다는 것은 상장 기업들이 적어도 기회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자본을 소비하는 주체이다. ROE가 COE보다 높다면 자본을 소비함으로써 외형을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업이 자본의 주요 소비 주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본의 기회비용인 금리가 낮을 때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맥킨지 컨설팅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가장 이득을 본 주체는 바로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맥킨지가 저금리로 인한 경제 주체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영국, 유로존 공통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저금리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07~2012년간 이어진 저금리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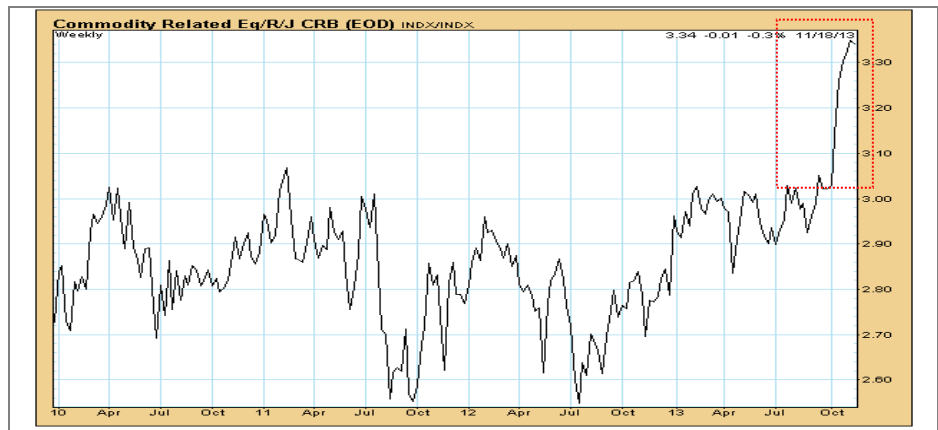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한국투자증권

선진국의 강력한 팽창적 통화정책이 주식 시장의 강세 배경이 되는 것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저금리로 기업들이 이득을 본다면 주식 시장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차기 연준 의장이 자넷 앨런이 현재의 통화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밝히 이후, 다시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유동성을 받쳐주고, 따라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유동성에 의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주식과 국제상품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도 받쳐준다면 주식보다 국제상품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해야 한다. [그림 2]는 상품 가격에 민감한 주식들로 구성된 지수와 CRB 지수간의 상대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수의 상대강도가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주식의 상대강도가 급등하고 있다.

[그림 2] 모건스탠리 상품관련 주식 지수 - CRB 지수 상대강도



자료: McKinsey, 한국투자증권

사실 상품 관련 주식의 주가와 국제상품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상품보다 관련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주식과 상품이라는 자산 고유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상품은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반면 주식은 수급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형태로 주주 이익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요컨대 국제상품에 투자할때는 오직 자본이득(Capatal gain)이 중요하다면 주식에 투자할때는 자본이득은 물론 배당과 같은 고정된 소득도 중요하다.

저금리로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두가지다. 투자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성장 환경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투자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 중동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사들이고 대형 선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 발주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그래서 여전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마땅히 투자할곳이 없다면 주주 이익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워렌버핏의 엑손모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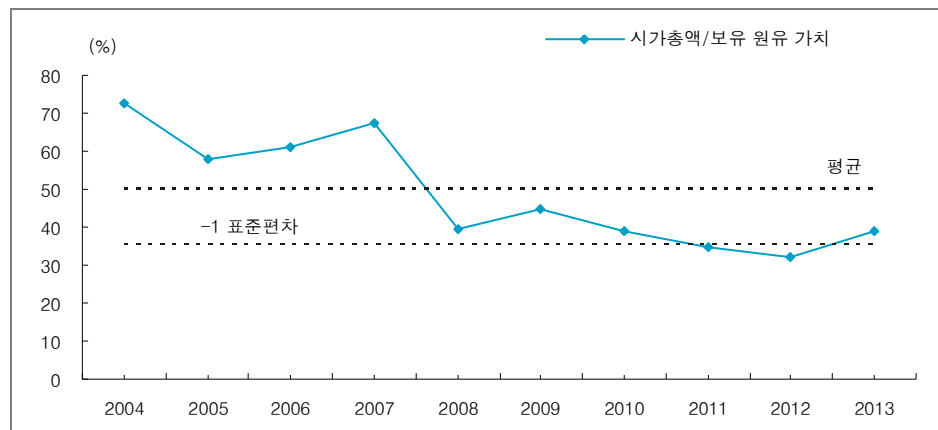
최근 워렌버핏이 엑손모빌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엑손모빌은 에너지 개발, 원유 정제,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이다.

엑손모빌은 ROE 20% 이상을 유지하는 위대한 기업이지만 최근들어 에너지 개발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주가도 매우 부진했다. 엑손모빌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상승하거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워렌버핏의 투자가 에너지 가격의 회복,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엑손모빌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같은 탐다운 측면의 투자라기 보다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바텀업 측면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엑손모빌은 막대한 에너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엑손모빌이 보유한 원유 매장량은 130억 배럴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가를 80\$로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은 원유 매장량 가치 대비 38%에 불과하다. 여기다 가스 등 다른 에너지 가치를 더하면 시가 총액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동 비율이 60%에 육박했고, 평균적으로도 5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보유하고 있는 원유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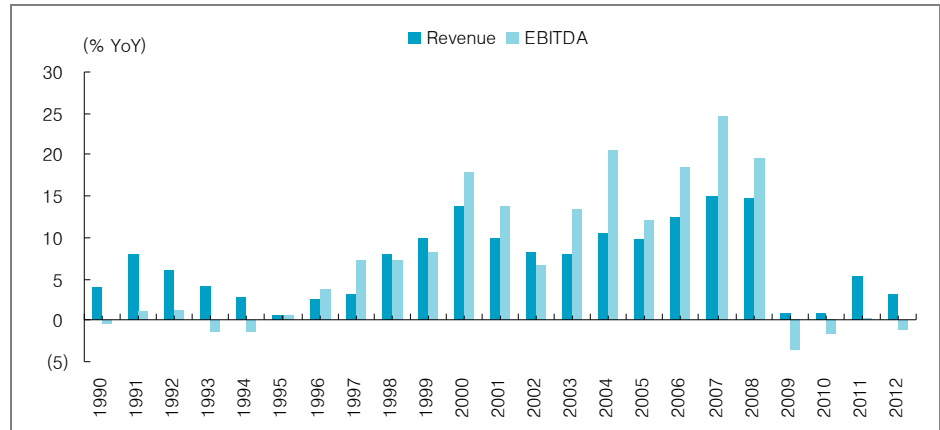
[그림 3] 엑손모빌이 보유한 원유 매장량 가치와 시가총액 비교



자료: 엑손모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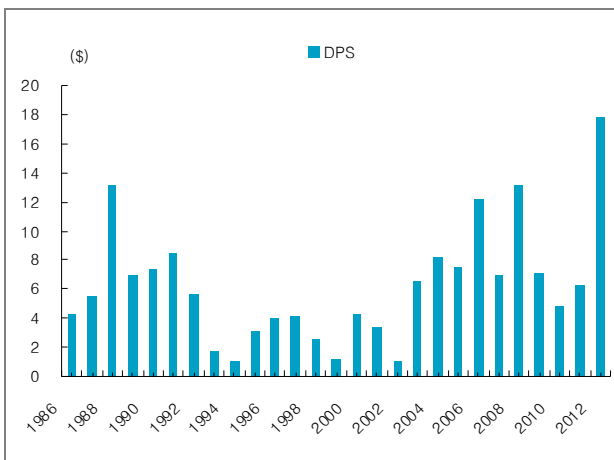
또한 엑손모빌의 기업전략은 2008년 이후 성장 중심에서 주주환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2012년 DPS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금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림 4] 엑손모빌 매출액과 EBIT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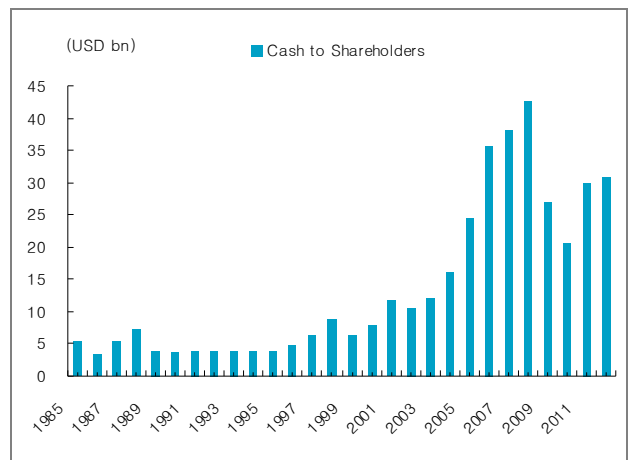
자료: 엑손모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엑손모빌 DPS



자료: 엑손모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엑손모빌 주주환원 금액



자료: 엑손모빌, 한국투자증권

요컨대, 엑손모빌은 확보한 에너지 자산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워렌버핏이 강조하는 이른바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향후 유가 전망에 따라 엑손모빌이 보유한 에너지 자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배럴당 80\$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에너지 개발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데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급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Tight oil도 적어도 WTI 기준 80\$ 이상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투자전략

시장의 키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12월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서머스가 물러나고 앨런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는 순간 유동성 게임은 사실상 생각보다 길어졌다.

다만 유동성이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가격이 약하고 국제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달러 강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 3분기와는 달리 미국 달러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예상하고 있다.

투자 전략으로 우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항공, 한국의 조선 산업이 대표적으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주식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얼마전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Snapchat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페이스북으로부터 제시받은 인수 제안을 거부했는데,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와는 달리 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아시아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훨씬 더 강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일부 산업에서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주주 친화적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우선주와 연말 배당 기대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익매물 등으로 중화권 증시 강세 둔화

- ▶ 차익실현 매도, 광저우시의 주택구입 규제책, 은행 규제 강화 전망에 상해종합 약세 전환
- ▶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국제판 출범 가능성 약화 등의 호재가 지수 하락폭 제한
- ▶ 홍콩H는 미국 양적완화 시사, 중국본토의 개혁 기대 지속으로 추가로 소폭 상승

상해종합 0.2% 하락
은행, 금융신탁, 의료서비스,
증권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2% 하락해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됐다. 보험세로 출발해 장중에 혼조 흐름을 이어갔다. 거래대금은 1,159억위안으로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 최근 지수급등에 따른 부담이 높아져 차익매물이 증가했다. 인민은행이 역RP 발행규모를 350억위안으로 늘렸으나 유동성 부족 우려를 완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주택구입 규제책을 발표했고, 감독당국이 은행의 비표준화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소식이 부담을 줬다. 샤오강 증감회 주석이 국제판 출범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발언을 해 지수 하락폭이 제한됐다. 업종별로는 농림목어업(3.3%), 미디어(3.2%), 항공운수(2.6%), 종이(2.1%), 석탄가스(1.9%), 환경보호(1.9%), 영화방송(1.4%), 목재가구(0.9%), 석유(0.5%) 등이 강세였다. 반면 은행(-1.5%), 금융신탁(-1.4%), 의료서비스(-1.3%), 증권(-1.2%), 건설자재(-0.6%), 임업(-0.4%)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0.5% 상승
보험, 석유, 은행, 기계, 철
도 등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직전일 급등에 이어 0.5% 추가 상승했다. 1%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점차 상승 폭이 줄어 들었다. 미국 앨런 연준의장 후보자의 양적완화 선호 발언과 중국 본토의 개혁 모멘텀이 지속됐으나 차익매물이 크게 늘어나 부담을 줬다. 보험, 석유, 은행, 기계, 철도, 제약, 통신 등의 업종들이 상승했던 반면 전력, 자동차, 시멘트, 음식료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대주주의 자사주매입 계획 공시로 시노펙(386 HK) 주가는 1% 넘게 올랐고 보험주 주가도 지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19(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93.13	-0.19	3.12	2.41	-3.35
홍콩 H	11,365.45	0.51	7.61	6.95	-0.62
인도 SENSEX	20,892.04	0.20	1.96	-1.29	7.54
러시아 RTS	1,457.95	-0.34	1.43	-1.52	-4.52
브라질 보베스파	54,307.04	1.60	3.94	0.09	-10.90
베트남 VN	504.71	-0.35	1.42	1.47	21.99
MSCI 이머징마켓	1,025.30	2.00	3.41	-0.88	-2.83

주: 1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시장별 매매주체가 엇갈리며 코스피는 2,030P선 회복을, 코스닥은 505P로 밀려나며 마감

- 미국증시는 장 초반 다우지수가 1만6,000선을 S&P500 지수가 1,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국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혼조세로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주도,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2,030P선 회복에 성공.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장중 1% 이상 급락하기도 했으나,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505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올해를 저점으로 화장품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콜마, 에이블씨앤씨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라이온캡텍은 국내외 리모델링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13% 이상 급등. 반면,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8%나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연출. 또한, 회장 지분 감소 소식에 모다정보통신은 하한가를, 추가상장 물량 부담감에 이엘케이의 신저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 용
한국전력(015760) ▶31,850(+6.88%)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세부내역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산업용 6.4%, 일반용 5.8%, 가로용 5.4%, 심야용 5.4%, 농사 3.0%, 주택용 2.7% 순이며 교육용 전기는 동결기로 결정
한국콜마(161890) ▶25,850(+7.71%)	업황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낙폭과대 및 업황 바닥설이 제기되며 2014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며 급등세 - 중국 사업부는 내년 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경공장 증설, 광저우 공장 인수 등으로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라이온캡텍(171120) ▶16,050(+13.03%)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초강세 -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인조 대리석과 플라스틱 첨가제인 합성 왁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합성왁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부각되며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초강세 -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인조대리석은 국내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이며, 2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만도(060980) ▶147,500(+3.51%)	- 자동차 부품주들의 구조적 고성장 전망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최근 일본 닛산에 공급하게 될 RA밸브를 적용한 서스펜션 제품 양산 돌입과 독일 자동차부품 업체 인수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LIG손해보험(002550) ▶30,450(+13.41%)	- LIG그룹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해 동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신고가 경신.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매물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평가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기아차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기아차 (000270)	2014년에도 증설효과와 함께 글로벌 판매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 지속 전망 - 미국판매 만족도 개선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신형 PS Soul, 프리미엄 세단 K900(국내 모델명 K9) 출시 등으로 신차 효과 기대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A	47,243	3,522	3,751	9,253	6.6
	2013. 12F	48,580	3,611	3,862	9,527	6.6
에스엠 (041510)	- 컨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가사업 확대와 함께 SM C&C와의 시너지를 통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강화된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 동남아 진출을 통해 아티스트 활동 증가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A	241	61	40	2,002	22.8
	2013. 12F	278	57	40	1,948	21.0
대림산업 (000210)	-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유지 - 삼호와 고려개발 등 자회사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화학부문 실적 개선 - 해외 플랜트 회복 사이클, 기술 경쟁력, 수주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A	10,253	486	391	10,128	8.6
	2013. 12F	10,250	500	407	10,556	9.3

- 편입 제외 종목: 힐라코리아(기간경과로 제외 +23.7%)
오디텍(시세부진으로 제외 -16.1%), 와이솔(시세부진으로 제외 -15.0%)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텔레콤 (017670)	222,000 (-1.3)	225,000 (11/15)	- 초고속 LTE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과 함께 시장 지배력 확대, 배당 및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
HB테크놀로지 (078150)	1,570 (-8.2)	1,710 (9/30)	- 올해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로 턴어라운드 시현. 경쟁사 이탈로 검사장비 부문 독과점적 수혜 예상 - 관계사 엘에스텍과의 흡수합병으로 도광판 부문 수직계열화 완성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확보. 합병 후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된 상황이며 잔여 BW 워런트는 연내 소각 예정 - 삼성전자 OLED A3라인 투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 수주잔고를 통해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성광벤드 (014620)	27,700 (-3.7)	28,750 (9/09)	-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주 지속. 미국 세일가스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 -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 금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MIX 개선으로 20%대의 고수익성 유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 대림산업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73,500 (+11.5)	65,900 (11/04)	1,533	232	82	7,083	10.4
- 1등 아웃도어 브랜드(노스페이스, 에이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하반기 및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되며 영원무역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와 2014년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 - 방글라데시 증설 구체화와 함께 생산 품목 및 고객 다각화 시도에 장기 성장 잠재력 내재 - 현 시가총액은 동사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 지분 가치와 유사하며 지분 59%를 보유한 영원아웃도어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LG화학 (051910)	298,000 (-2.1)	304,500 (10/11)	5,010	676	515	29,123	10.2
-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한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고려아연 (010130)	293,500 (-10.2)	327,000 (9/09)	5,010	676	515	29,123	10.1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에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214,500 (+26.9)	169,000 (7/30)	726	182	164	8,200	26.2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78,100 (+6.7)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8.3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코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성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489,000 (-2.0)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3
- 범용화된 스마트폰 산업 내에서 시장 지배력 확대 - 부품사업 (반도체, OLED)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 스마트폰 산업 우려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주가 저평가 요인 극복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고려아연, LG화학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어: 끝이라니요, 이제 시작인데

■ 타이어 수익성, 급락은 없다

타이어의 마진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원재료인 고무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수요회복기에서는 마진하락의 폭이 기존 회복기보다 작고 그 속도도 느릴 것으로 판단한다(한국타이어 2009~2011년 OPM -3.3%p vs. 2013~2015년 예상 OPM -1.4%p). 이는 1) 합성고무 설비가 직전 peak인 2011년 대비 13% 증가했고, 2) 천연고무의 채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2005~2008년 채배면적 12% 증가 - 고무나무는 식재 7년 뒤부터 수확), 3) 고성능/고인치 타이어의 채택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국타이어 UHPT 비중 2009년 9% vs. 1H13 26%).

■ 2014년, 중국 내 타이어 핑크를 기다린다

2013년 중국의 타이어 수요 성장이 OE(신차용 타이어) 중심이었다면 2014년에는 RE(교체용 타이어)가 주도할 전망이다. 그 근간에는 취득세 감면으로 2009~2010년 급증한 신차판매량이 있다. 안전에 둔감한 중국 운전자에게 선진국과 같은 타이어 교체주기 3~4년을 대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4년부터는 마모로 인한 반강제적인 교체수요가 나타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기간 동안 현대기아차는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판매신장률을 보였다(137% vs. 업계평균 106%). 따라서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국산 타이어 브랜드에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 한국타이어: 떠오르는 신인에서 주연급 연기자로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타이어업계 순위는 근 10년 만에 4계단이나 올라섰다(2001년 #11 → 2012년 #7). 지난 15년간 타이어 업계 순위에서 4계단 이상 올라선 업체는 고사하고 4계단 이상 떨어진 업체도 없다. 그만큼 변동이 심하지 않은 타이어업계를 고려해 봤을 때 한국타이어는 단연 눈에 띄며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로 한국타이어가 second-tier에 진입하면서 re-rat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2014년에는 중국, 유럽 등 주력시장의 개선이 기대된다. 목표주가 81,000원을 유지한다(mid-cycle PER 11배에 10% 할증).

■ 넥센타이어: 호황을 대비한 내실 다지기

넥센타이어의 기초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두 개 분기 동안 넥센타이어는 시장기대치 및 경쟁사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투자가들을 실망시켰다. 이는 주력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심화와 R&D, 광고비 등 비용 증가가 주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실적보다 내실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OE타이어의 비중은 2009년 8%에서 올해 3분기에는 20%까지 상승했다(한국공장 기준). 고수익 제품인 UHPT비중 또한 빠르게 상승해 동종업계 최고수준인 40%이다. 여기에 2012년 3월 생산을 개시한 창녕공장은 올해 2분기 영업흑자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9.2%에 도달했다.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는 타이어 업황 개선과 맞물려 회복 될 전망이다. 목표주가 21,000원을 유지한다(mid-cycle PER 13배 적용).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CC(002380)

매수(유지)

목표가: 570,000원(상향)

종가(11/15): 459,500원

KCC, 플랫폼으로 진화하다

■ KCC가 B2C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홈씨씨 인테리어’

KCC는 작년 출시한 ‘홈씨씨 인테리어’ 서비스를 통해 B2C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턴키시공 서비스로 1) 온라인에서 ‘홈씨씨 견적’을 신청하면 제휴 업자의 실측 후 견적을 제공하고, 2) 제휴 업자는 KCC의 건자재를 사용해 시공 마진을 취한다. KCC는 인테리어점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다. 그간 국내 인테리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자에 위탁하는 방식이어서 부실 시공의 부작용이 컸다. DIY도 어려운 한국 특성과 골목상권 침체 이슈를 감안해 KCC는 인테리어 업자와의 윈윈 전략을 수립했다. 리모델링 확산의 시대에 ‘홈씨씨’는 비브랜드 위주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강력한 수단이다.

■ 홈씨씨, 리모델링 산업구조를 재편할 것

출시 후 적자였던 홈씨씨 사업부는 올해 2분기 흑자전환했고 3분기 영업이익률은 4%에 도달했다. 매출은 2012년 830억원에서 2014년 1,2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2014년 예상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전사의 3%에 불과하나 이는 B2C 시장에 약했던 KCC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킬 것이다. 실제 2분기부터 건자재 부문은 홈씨씨의 성장과 함께 턴어라운드하고 있다. 중소기업체 M/S의 1/3을 가져올 경우 EPS는 11% 상승한다. 이는 브랜드 위주로 재편되며 top-tier가 성장을 구가한 일본 가구 인테리어 업계와 유사하다.

■ 목표주가 570,000원으로 상향, 전방산업도 돌아서다

건자재 M/S 상승을 감안해 NOPLAT 목표배수를 기존 KOSPI PER에서 20% 할증한 12배로 조정, 목표주가를 10% 상향한다. 비교그룹인 ‘홈디포’, ‘한샘’ 등은 자국시장 대비 40%의 할증을 받고 있으나 KCC 매출의 절반이 B2B 위주인 도료에서 발생함을 감안했다. 전방산업도 개선되며 2014년 영업이익은 28% 증가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3,371	123	478	326	33,253	(17.4)	357	8.6	9.2	0.6	6.0
2012A	3,246	199	627	445	45,384	36.5	363	6.5	9.6	0.6	9.0
2013F	3,294	220	375	280	28,622	(36.9)	379	16.1	13.4	0.9	5.6
2014F	3,487	282	262	197	20,112	(29.7)	446	22.8	11.0	0.9	3.8
2015F	3,872	353	338	255	25,997	29.3	521	17.7	9.1	0.9	4.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5.48	1,963.56	1,967.56	2,005.64	2,010.81	2,031.64
	등락폭	18.18	-31.92	4.00	38.08	5.17	20.83
	등락종목						
	상승(상한)	555(6)	231(14)	444(6)	538(4)	342(11)	427(3)
	하락(하한)	252(3)	582(2)	368(1)	280(3)	463(3)	394(7)
	ADR	82.46	80.56	82.50	84.01	82.32	80.49
	이격도						
	10 일	99.06	97.95	98.45	100.53	100.86	101.81
	20 일	98.31	96.90	97.28	99.27	99.63	100.73
	투자심리	30	20	30	30	4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247	252	323	260	314	397
	거래대금 (십억 원)	3,247	3,513	3,810	3,613	3,090	4,232
	코스닥지수	510.73	505.60	511.75	512.74	509.54	505.50
	등락폭	7.79	-5.13	6.15	0.99	-3.20	-4.04
	등락종목						
	상승(상한)	555(7)	231(7)	444(8)	535(9)	342(2)	289(4)
	하락(하한)	252(0)	582(6)	368(5)	384(3)	463(3)	645(4)
	ADR	76.68	77.83	82.42	82.09	78.25	74.88
	이격도						
	10 일	97.41	97.02	98.59	99.20	99.05	98.71
	20 일	96.94	96.15	97.41	97.72	97.30	96.77
	투자심리	30	2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288	298	276	310	290	296
	거래대금 (십억 원)	1,379	1,327	1,333	1,381	1,471	1,58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05.1	1,100.8	1,112.9	270.3	156.4	283.7	92.5	22.3	287.725	42.5
	매도	2,373.1	855.2	977.0	221.4	105.5	263.4	60.0	31.4	295.4	56.0
	순매수	-368.0	245.6	135.9	48.9	50.9	20.2	32.5	-9.1	-7.7	-13.4
	11 월 누계	536.8	-420.3	-52.7	-954.3	-90.2	213.2	66.1	-75.8	788.2	-63.8
	13 년 누계	-4,499.3	4,748.2	1,437.1	96.0	1,109.0	-6,114.1	-386.8	-2,722.6	9,455.6	-1,686.0
코스닥	매수	1,430.5	77.2	79.5	12.4	8.7	26.2	5.9	2.8	23.6	13.4
	매도	1,400.7	81.8	102.9	22.8	10.1	26.9	8.3	3.4	31.3	15.1
	순매수	29.7	-4.6	-23.4	-10.5	-1.3	-0.8	-2.4	-0.6	-7.8	-1.8
	11 월 누계	223.2	-84.7	-125.9	-41.8	-8.1	-7.3	4.6	-4.0	-69.3	-12.6
	13 년 누계	-544.4	1,627.9	-226.8	-173.6	-100.8	108.6	-146.2	-88.2	173.4	-856.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9,698
전기,전자	-21,729
화학	29,461
통신업	-7,675
전기가스업	17,253
보험	-6,405
한국전력	19,128
삼성SDI	-17,873
LG화학	15,503
KODEX 200	-16,749
현대차	7,268
NAVER	-8,565
현대모비스	6,899
삼성화재	-7,641
기아차	5,789
대한항공	-5,85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34,195
전기,전자	-12,229
화학	11,407
서비스업	-11,176
유통업	6,515
철강및금속	-7,385
한국전력	32,550
NAVER	-18,253
삼성중공업	7,992
현대제철	-8,974
롯데케미칼	4,916
제일모직	-8,411
금호석유	4,748
KT	-5,992
롯데쇼핑	4,311
현대중공업	-3,68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2,776
전기,전자	-2,752
철강및금속	570
화학	-2,202
의약품	181
보험	-1,123
한국전력	2,493
KODEX 레버리지	-3,866
KODEX 인버스	2,026
KODEX 200	-3,415
NAVER	1,081
LIG손해보험	-2,316
삼성생명	1,009
SK하이닉스	-1,861
엔씨소프트	995
LG화학	-1,568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443
전기,전자	-8,850
보험	12,119
은행	-700
화학	9,375
유통업	-410
삼성화재	9,403
KODEX 200	-10,974
한국전력	8,447
NAVER	-4,693
SK이노베이션	5,687
삼성전자	-3,669
삼성중공업	4,086
삼성SDI	-3,528
기아차	3,347
현대해상	-2,09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65,420
서비스업	-31,338
운수장비	58,791
전기,전자	-28,702
화학	40,242
운수창고	-8,432
KODEX 레버리지	77,305
NAVER	-40,202
한국전력	67,771
삼성SDI	-38,341
삼성중공업	17,737
KODEX 인버스	-31,886
기아차	15,467
KT	-10,579
현대차	13,344
오리온	-7,361
LG화학	12,219
코웨이	-7,038
POSCO	11,692
대한항공	-6,884
삼성전자	10,913
현대제철	-5,462
KB금융	7,575
대우조선해양	-4,782
금호석유	7,529
동양	-4,50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94,298
전기가스업	-13,975
전기,전자	79,716
통신업	-12,682
서비스업	51,144
철강및금속	-6,811
삼성전자	76,136
한국전력	-15,545
NAVER	34,643
LG유플러스	-11,442
LG화학	29,032
LIG손해보험	-10,060
현대중공업	23,066
POSCO	-8,048
삼성중공업	17,281
삼성물산	-5,953
현대모비스	15,602
SK텔레콤	-5,483
현대차	11,247
고려아연	-4,716
오리온	11,161
두산중공업	-4,530
코웨이	8,703
하나금융지주	-3,936
강원랜드	7,584
GS건설	-3,696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087	IT부품	-2,165
음식료,담배	808	금속	-1,687
운송장비,부품	440	컴퓨터서비스	-1,041
씨젠	1,233	성광벤드	-1,527
GS홈쇼핑	817	포스코 ICT	-1,023
테스	781	CJ E&M	-1,017
하림	764	한글과컴퓨터	-842
에스엠	757	CJ오쇼핑	-73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4,050	반도체	-5,932
연구,개발	1,307	컴퓨터서비스	-2,287
소프트웨어	722	사업지원	-1,933
씨젠	1,833	서울반도체	-3,857
바이로메드	1,191	포스코 ICT	-2,287
메디톡스	987	모두투어	-1,933
한글과컴퓨터	623	원익IPS	-1,341
엘엠에스	594	인터파크	-83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09	제약	-1,018
운송장비,부품	275	오락,문화	-196
의료,정밀기기	260	컴퓨터서비스	-166
비에이치	299	휴온스	-1,012
평화정공	277	원익IPS	-359
세코닉스	260	파라다이스	-196
코텍	199	포스코 ICT	-167
루멘스	167	파트론	-12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398	반도체	-2,053
소프트웨어	295	방송서비스	-961
디지털컨텐츠	277	의료,정밀기기	-484
CJ E&M	3,398	서울반도체	-1,904
덕산하이메탈	1,307	실리콘웍스	-976
ISC	455	CJ오쇼핑	-903
솔브레인	403	메디톡스	-588
코나아이	248	유진테크	-54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1,267	반도체	-12,334
출판,매체복제	1,213	IT부품	-9,865
연구,개발	1,172	컴퓨터서비스	-5,103
덕산하이메탈	2,956	서울반도체	-7,567
씨젠	2,257	이엘케이	-6,253
GS홈쇼핑	1,109	포스코 ICT	-4,978
바이로메드	1,075	원익IPS	-4,819
에스엠	998	모두투어	-2,140
테스	960	성광벤드	-1,935
하림	862	파트론	-1,829
코나아이	763	실리콘웍스	-1,566
삼천리전자거	727	CJ오쇼핑	-1,254
평화정공	684	휴온스	-1,15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237	오락,문화	-3,372
화학	2,183	제약	-2,234
도매	1,016	디지털컨텐츠	-2,008
CJ오쇼핑	2,711	씨젠	-3,020
인터파크	1,870	파라다이스	-2,671
덕산하이메탈	1,833	게임빌	-1,712
에이블씨엔씨	1,070	GS홈쇼핑	-1,639
솔브레인	1,003	CJ E&M	-1,538
이라이콤	946	원익IPS	-1,027
이오테크닉스	935	옵트론텍	-861
에스엠	836	미디어플렉스	-732
다음	820	케이엠더블유	-699
실리콘웍스	675	포스코 ICT	-69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POSCO	16 일	TIGER 200	15 일	이트레이드증권	100 일	에스엠	6 일
한국전력	14 일	한화	13 일	SBS콘텐츠허브	16 일	실리콘웍스	6 일
퍼시스	14 일	아모레G	9 일	GS홈쇼핑	9 일	KTH	4 일
현대하이스코	13 일	LS	8 일	메가스터디	8 일	에이블씨엔씨	3 일
SK C&C	12 일	대한제강	7 일	덕산하이메탈	7 일	유진기업	2 일
파워 K100	11 일	제일모직	6 일	성우하이텍	6 일	아트라스BX	2 일
동아타이어	9 일	금호타이어	6 일	매일유업	5 일	심텍	2 일
대한유화	8 일	풍산	6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솔브레인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63,503	삼성전자	111,761	에스엠	8,257	서울반도체	14,623
한국전력	86,671	SK하이닉스	39,272	GS홈쇼핑	7,633	CJ오쇼핑	4,964
SK하이닉스	38,274	현대중공업	37,706	다음	3,963	삼천리자전거	4,708
KB금융	34,572	POSCO	34,710	하림	3,757	에스엠	4,475
삼성전자	33,142	현대차	20,947	성우하이텍	3,706	인터파크	3,179
POSCO	32,883	기아차	19,312	매일유업	3,107	성광벤드	3,011
현대중공업	24,439	LG상사	19,015	평화정공	3,068	에스에프에이	2,206
삼성중공업	22,628	삼성물산	17,936	솔브레인	1,868	휴비츠	2,19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58,791	94,298	153,089	화학	989	2,183	3,172
화학	40,242	46,245	86,487	연구,개발	1,172	587	1,759
유통업	10,304	3,438	13,742	음식료,담배	1,126	602	1,727
삼성전자	10,913	76,136	87,049	덕산하이메탈	2,956	1,833	4,788
KODEX 레버리지	77,305	1,048	78,353	에스엠	998	836	1,834
LG화학	12,219	29,032	41,251	바이로메드	1,075	571	1,646
삼성중공업	17,737	17,281	35,019	솔브레인	498	1,003	1,502
현대중공업	3,923	23,066	26,989	삼천리자전거	727	561	1,289
현대차	13,344	11,247	24,591	코나아이	763	506	1,268
기아차	15,467	5,684	21,151	에이블씨엔씨	105	1,070	1,175
현대모비스	3,059	15,602	18,661	셀트리온	219	649	868
만도	3,974	6,313	10,287	평화정공	684	21	705
현대위아	5,256	4,762	10,019	서한	632	67	69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현대상선	26 일	삼성테크윈	17 일	이오테크닉스	11 일	KCC건설	24 일
현대엘리베이	16 일	울촌화학	12 일	심텍	9 일	큐렉소	12 일
TIGER 농산물선물(H)	16 일	한솔제지	11 일	AP시스템	9 일	에이테크솔루션	12 일
현대증권	15 일	동아타이어	11 일	KCC건설	6 일	코미팜	11 일
코오롱	13 일	SK C&C	11 일	주성엔지니어링	6 일	포스코엠텍	9 일
우리투자증권	12 일	하나투어	10 일	툽텍	6 일	신화인터텍	9 일
한화	10 일	대덕전자	9 일	성광벤드	4 일	동서	8 일
TIGER 증권	10 일	동부제철	9 일	태웅	4 일	포스코엠텍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NAVER	-60,997	기아차	-33,009	서울반도체	-15,388	게임빌	-9,685
KODEX 인버스	-57,793	삼성SDI	-32,068	인터플렉스	-5,952	KG이니시스	-9,000
KODEX 200	-41,904	POSCO	-26,492	포스코 ICT	-4,432	다음	-6,532
삼성SDI	-32,619	대한항공	-26,460	원익IPS	-4,003	GS홈쇼핑	-5,032
우리투자증권	-23,049	현대미포조선	-26,241	동원개발	-3,261	오스템임플란트	-3,069
KT	-22,578	우리투자증권	-25,586	성광벤드	-2,763	파라다이스	-2,799
대한항공	-21,771	삼성물산	-21,898	AP시스템	-2,519	포스코 ICT	-2,503
오리온	-18,244	GS건설	-21,716	이라이콤	-2,402	디스플레이텍	-2,24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6,261	-12,682	-18,943	IT부품	-9,865	-329	-10,194
운수창고	-8,432	-435	-8,867	컴퓨터서비스	-5,103	-842	-5,945
증권	-3,513	-1,439	-4,952	오락,문화	-266	-3,372	-3,638
GS건설	-2,472	-3,696	-6,168	이엘케이	-6,253	-65	-6,318
SK텔레콤	-668	-5,483	-6,151	원익IPS	-4,819	-1,027	-5,846
두산중공업	-423	-4,530	-4,953	포스코 ICT	-4,978	-692	-5,670
고려아연	-62	-4,716	-4,779	파라다이스	-552	-2,671	-3,223
동양	-4,500	-187	-4,687	파트론	-1,829	-282	-2,111
SK하이닉스	-911	-3,204	-4,114	인터플렉스	-1,052	-250	-1,302
우리투자증권	-2,561	-397	-2,958	SK브로드밴드	-945	-300	-1,244
삼성전기	-622	-1,199	-1,821	휴온스	-1,158	-2	-1,160
KT&G	-420	-1,365	-1,785	파세코	-501	-236	-737
키움증권	-734	-616	-1,351	비에이치	-203	-428	-63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33	10,889	
OCI	28	5,425	
SK하이닉스	152	5,130	
삼성증권	112	4,985	
대한항공	170	4,962	
삼성화재	18	4,719	
삼성물산	73	4,594	
현대중공업	15	4,1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1	1,312	
태웅	22	672	
삼목에스폼	96	670	
파트론	39	608	
씨젠	8	505	
네오위즈게임즈	31	488	
안랩	8	480	
매일유업	8	35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95	5,299,250	
POSCO	8,748	2,864,965	
LG전자	21,076	1,412,079	
현대차	4,785	1,215,267	
OCI	5,101	969,145	
NAVER	1,327	829,230	
현대중공업	2,811	774,488	
SK하이닉스	18,542	625,78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5,104	657,035	
파라다이스	4,460	115,526	
에스엠	2,332	94,464	
서울반도체	2,273	93,433	
파트론	5,791	91,795	
다음	913	75,505	
씨젠	1,117	70,061	
CJ E&M	2,008	60,249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증권	16,334	기계	-1,631
금융업	3,902	운수장비	-1,479
전기,전자	1,241	화학	-1,089
현대증권	12,380	삼성중공업	-1,236
신한지주	1,615	대우건설	-955
우리금융	1,465	두산중공업	-736
동양증권	1,355	SH에너지화학	-692
LG전자	1,237	하나금융지주	-593
대한항공	1,019	삼익악기	-565
두산건설	914	금호타이어	-492
한화손해보험	726	한화생명	-468
SK증권	714	삼성생명	-446
LG유플러스	627	기아차	-44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소프트웨어	717	컴퓨터서비스	-1,950
디지털컨텐츠	539	통신서비스	-1,843
섬유,의류	482	금융서비스	-344
코다코	580	포스코 ICT	-2,467
네오위즈게임즈	425	SK브로드밴드	-1,962
대아티아이	377	하이비전시스템	-422
SKC 솔믹스	334	인터파크	-251
리노스	331	파라다이스	-216
지엔코	302	리홈쿠첸	-154
이지바이오	264	성우하이텍	-148
동국S&C	262	상신이디피	-138
한국토지신탁	253	서원인텍	-137
티케이케미칼	190	성광벤드	-13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외국인	4,748.2	-420.3	39.9	-185.2	-65.7	58.5	-13.3	245.6
기관계	1,437.1	-52.7	242.9	-53.9	-86.7	186.4	61.2	135.9
(투신)	-6,114.1	213.2	255.2	31.7	39.4	115.8	48.0	20.2
(연기금)	8,974.0	729.9	220.8	22.3	117.5	14.9	39.7	26.3
(은행)	-2,722.6	-75.8	-20.6	10.0	-1.3	-7.1	-13.2	-9.1
(보험)	1,109.0	-90.2	-21.2	-43.2	-99.9	51.2	19.8	50.9
개인	-4,499.3	536.8	-275.2	231.9	149.4	-243.2	-45.3	-368.0
기타	-1,686.0	-63.8	-7.6	7.1	3.0	-1.6	-2.7	-13.4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KOSPI	2,033.3	1,825.7	1,997.1	1,995.5	1,963.6	1,967.6	2,005.6	2,010.8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4,764.5	14,550.9	14,751.7	14,797.7	14,201.3
(증감액)	1,996.5	3,611.7	334.1	90.9	-213.6	200.8	46.0	-596.4
(회전율)	50.9	34.2	26.7	31.3	33.3	34.9	34.6	32.1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341.5	-6.4	204.0	318.6	-486.6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72.4	4,514.7	4,487.9	4,483.2	4,490.3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27.4	152.8	116.1	118.2	118.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전체 주식형	83,960	-9,549	-1,625	-36	-30	158	-84	-275
(ex. ETF)		-10,123	6	83	23	43	49	9
국내 주식형	63,206	-5,633	-1,410	-29	-22	188	-78	-268
(ex. ETF)		-6,241	221	91	30	72	56	15
해외 주식형	20,753	-3,916	-215	-8	-8	-29	-6	-7
(ex. ETF)		-3,882	-215	-8	-7	-29	-6	-7
주식 혼합형	9,896	-34	33	12	12	-1	5	10
채권 혼합형	23,014	4,291	-108	-44	-95	-31	42	72
채권형	56,075	2,429	707	151	-32	109	-33	194
MMF	76,995	9,928	2,390	-117	892	375	-381	-1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한 국	4,702	-390	-1,028	-173	-62	55	-13	233
대 만	6,810	-606	-1,069	-287	-201	-86	45	6
인 도	16,937	608	-546	-	-	-	-	-
인도네시아	-1,348	-315	-800	-48	-12	-17	25	-
태국	-4,150	-715	-748	-136	-48	-54	-18	-
남아공	1,163	-808	-492	-216	-107	-148	4	-
필리핀	846	-111	-25	-9	-13	-8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회사채 (AA-)	3.29	3.39	3.37	3.37	3.37	3.36	3.38
회사채 (BBB-)	8.80	9.09	9.07	9.07	9.07	9.06	9.08
국고채 (3년)	2.82	2.96	2.93	2.93	2.94	2.93	2.95
국고채 (5년)	2.97	3.25	3.22	3.23	3.24	3.24	3.28
국고채 (10년)	3.16	3.59	3.56	3.57	3.59	3.58	3.63
미 국채 (10년)	1.76	2.76	2.73	2.72	2.69	2.63	-
일 국채 (10년)	0.80	0.60	0.60	0.60	0.63	0.63	-
원/달러	1,070.60	1,071.40	1,072.60	1,067.90	1,063.40	1,057.90	1,056.40
원/엔	1,243.73	1,079.39	1,078.10	1,073.38	1,062.77	1,058.42	1,058.09
엔/달러	86.08	99.70	99.49	100.06	100.15	99.95	99.84
달러/유로	1.32	1.34	1.34	1.34	1.34	1.35	1.35
DDR3 1Gb (1333MHz)	0.67	1.45	1.43	1.41	1.40	1.40	-
DDR3 2Gb (1333MHz)	1.07	2.01	1.98	1.98	2.00	2.02	-
NAND Flash 16Gb (MLC)	1.89	3.54	3.54	3.54	3.54	3.54	-
CRB 지수	295.01	273.43	273.49	273.84	274.34	272.92	-
LME 지수	3,454.5	3,064.0	3,029.8	3,039.7	3,048.2	3,028.1	-
BDI	699	1,543	1,531	1,517	1,507	1,500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04	93.88	93.88	93.84	93.03	-
금 (달러/온스)	1,663.40	1,271.20	1,268.40	1,286.30	1,287.40	1,272.3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13일	258.04	258.50	0.54	0.46	0.22	199,977	117,044	-2,485
11월 14일	258.44	259.70	0.53	1.26	0.26	229,588	113,261	-3,783
11월 15일	264.20	264.75	0.52	0.55	0.69	166,215	115,868	2,607
11월 18일	265.03	265.60	0.46	0.57	0.19	105,878	114,187	-1,681
11월 19일	267.81	268.60	0.47	0.79	1.05	163,806	117,956	3,76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13일	-5,308	34	6,082	5,468	448	-16	103	78
11월 14일	-3,031	1,310	687	-1,780	1,415	-107	649	510
11월 15일	2,075	-1,389	-1,351	-1,981	527	33	111	-39
11월 18일	-1,114	672	373	914	-586	45	34	-35
11월 19일	951	326	-1,759	-2,836	891	-50	189	-53
누적포지션	-8,912	4,859	3,279	3,072	397	1,623	-1,912	20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13일	831	578	-253	734	563	-171	97	15	-83	5,214	9,467
11월 14일	960	646	-313	810	617	-192	150	29	-121	5,250	9,375
11월 15일	550	649	99	536	618	82	14	31	17	5,261	9,414
11월 18일	554	521	-33	528	512	-17	26	10	-16	5,276	9,412
11월 19일	610	1,030	420	598	988	390	12	4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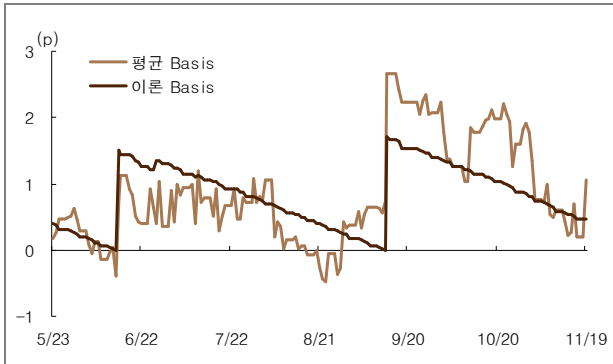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2.82	-36	149,592	0.66	277.50	9.50	199	70	9.88
12.86	456	204,816	1.11	275.00	7.50	347	129	11.05
13.07	-1,413	210,641	1.81	272.50	5.75	1,456	295	11.80
13.55	-2,330	111,337	2.84	270.00	4.20	5,984	1,127	12.09
13.86	-845	32,365	4.10	267.50	2.98	28,081	3,428	12.47
14.08	-1,050	15,384	5.60	265.00	2.04	98,962	5,562	12.83
15.25	-235	2,707	7.55	262.50	1.38	106,634	2,552	13.31
15.42	-178	1,762	9.45	260.00	0.92	134,919	6,461	13.83
17.04	-69	238	11.75	257.50	0.60	114,827	4,590	14.31
17.21	-14	88	13.90	255.00	0.39	129,259	4,085	14.84
22.90	3	10	16.85	252.50	0.26	88,257	10,754	1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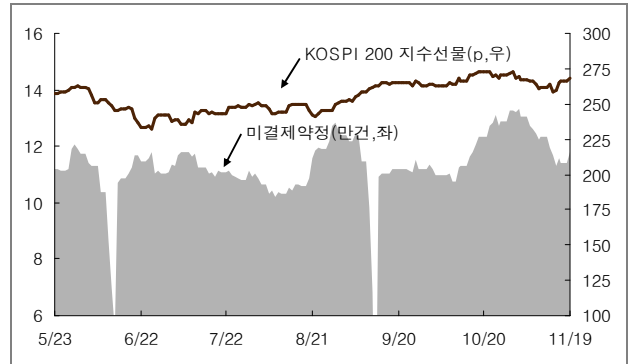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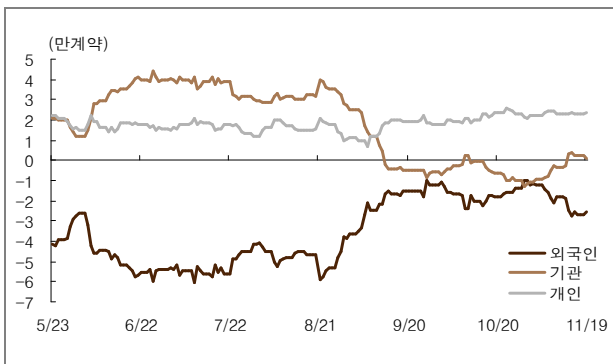
- 평균 Basis: 1.05 (전 거래일 대비 0.86 상승)
- 이론 Basis: 0.4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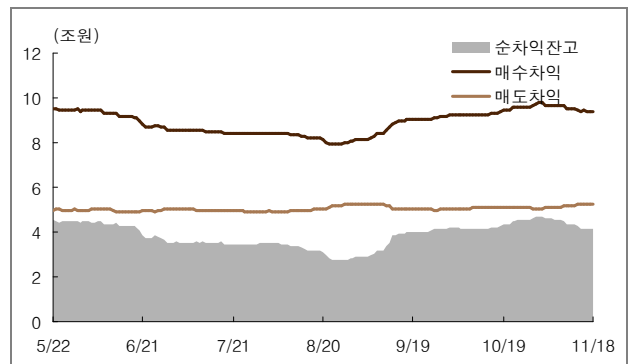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769 계약 증가한 117,956 계약
- 선물가격(268.60): 전 거래일 대비 3.0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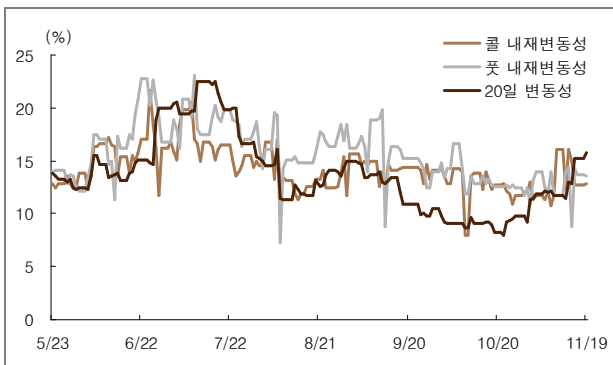
- 외국인: 951 계약 순매수
- 기관: 1,759 계약 순매도 / 개인: 326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295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3,900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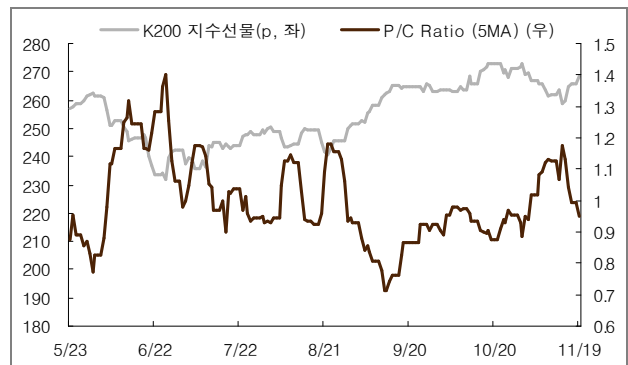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2.8% / 풋 13.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5.79%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5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3.2%, 3.3%, 3.1%)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5%, -1.4%, -1.3%) 10월 광공업생산 (10.3%, 10.0%, 10.2%) 日> 9월 BoP 경상수지 (억 엔) (5,873, 4,008, 1,615)	美> 10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91.6, 93.5, 93.9) 日> 10월 통화량 M2 YoY (4.1%, 3.9%, 3.9%) 10월 통화량 M3 YoY (3.3%, 3.1%, 3.1%) 9월 3차산업지수 MoM (-0.2%, 0.2%, 0.6%)	韓> 10월 실업률 SA (3.0%, 3.0%, 3.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 n/a, -7.0%) 유럽> 9월 산업생산 SA MoM (-0.5%, -0.2%, 1.0%) 日> 10월 국내 CGPI YoY (2.5%, 2.5%, 2.3%)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2.50%, 2.50%, 2.50%) 美> 9월 무역수지 (억 달러) (-418, -390, -388) 엘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유럽> 3분기 GDP SA YoY (-0.4%, -0.3%, -0.6%) 日> 3분기 GDP SA (0.5%, 0.4%, 0.9%) 9월 광공업생산 (1.3%, n/a, 1.5%)	美> 10월 광공업생산 (-0.1%, 0.2%, 0.7%) 10월 수입물가지수 MoM (-0.7%, -0.5%, 0.1%) 유럽>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7%, 0.7%, 0.7%)
18	19	20	21	22
美> 9월 총 순 TIC 흐름(억달러) (-106.8, n/a, -138) 실적발표> 美 타이슨 푸드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54, 56, 55) 버닝기 워싱턴 경제클럽 연설 中> 10월 외국인 직접투자 (1.2%, 6.1%, 4.9%) 日> 9월 최종 동행지수 (108.4, n/a, 108.2) 9월 최종 선행지수 CI (109.2, n/a, 109.5) 실적발표> 美 델, 베스트바이, 홈디포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8%) 10월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n/a, 0.1%, -0.1%) 10월 소비자물가지수 (n/a, 0.0%, 0.2%) 10월 FOMC 의사록 공개 日> 10월 조정 무역수지(억엔) (n/a, 8,391, 10,913) 실적발표> 韓 동아쏘시오홀딩스 美 스테이플스, Deere & Co, Lowe's	美> 10월 기준주택매매 (n/a, -2.5%, -1.9%) 9월 기업재고 (n/a, 0.3%, 0.3%) 11월 Markit 미국 PMI 잠정 (n/a, n/a, 52.5) 10월 생산자물가지수 (n/a, -0.2%, -0.1%) 유럽>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상 (n/a, 51.6, 51.3) 中> 11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n/a, 50.8, 50.9)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n/a, 0.1%, 0.1%) 실적발표> 韓 코라오홀딩스, 와이솔, 와이저엔터테인먼트	유럽> 3분기 독일 GDP SA QoQ (n/a, 0.3%, 0.3%) 실적발표> 韓 빙그레 美 달러트리, 타겟, 갭
25	26	27	28	29
美> 9월 총 순 TIC 흐름	美> 10월 미결제주택매매 10월 주택착공건수 10월 건축허가 9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월 내구재 주문	韓> 10월 BoP 경상수지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日> 10월 소매판매	韓> 10월 광공업생산 YoY 유럽> 10월 유로존 실업률 1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日> 10월 실업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광공업생산 10월 자동차생산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